

위대한 연구를 위한 마음가짐

DONGJAE LEE

위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반대로,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연구를 해내야 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동기를 가지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석사 신입생으로써 나의 연구 동기 ‘이타주의’를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구에 몰입하는 방법과 모든 신입 연구자들이 이를 공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신입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내가 연구자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이다. 비단 연구자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 통용되는 고민일 것이다. 나 역시 최우수 논문상, 나아가서는 튜링상급 연구를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안타깝게도 해밍 (Hamming)은 위대한 연구자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로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꼽았다. 이미 나는 스스로의 역량을 의심하고 있는데, 벌써 위대한 연구자로서 실패한 것일까?

내 경험상 이러한 용기는 후천적으로 얻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동기 부여와 몰입이 중요하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쫓던 중간고사에서 전교 60등이라는 비교적 평범한 성적을 얻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할 수준은 아니었다. 그 후, 다음 기말고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면 용돈을 만 원 올려주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은 중학생이었던 나에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고,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의 자리에 올랐다. 이 경험은 적절한 동기 부여와 몰입이 어떻게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해밍의 언급에 따르면 클럭스턴 (Albert Clogston) 역시 자신만의 동기 부여를 통해 연구에 몰입했을 것이다. 클럭스턴은 인정받지 못하는 연구자 중 한 명이었지만, 자신의 동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을 것이다.

나의 연구 동기 중 하나는 연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회적 동기는 효과적 이타주의 (effective altruism)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효과적 이타주의는 이성을 바탕으로 타인을 도울 때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돕자는 생각이다. 컴퓨터 공학에서 최적화와 효율을 강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 역시 이러한 생각에 깊이 공감이 되었다. 카이스트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은 학업과 연구에 있어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한 사회적 기여라 생각한다. 나 역시 당장 위대한 연구를 할 용기는 없지만, 내 연구와 기술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남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장논리에서 벗어난 이타주의를 걸치레라 생각한다. 그러나,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평균 이상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연구가 타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것이다. 현재 하고 있는 연구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것이다. 자신을 지구를 구할 유일한 영웅이라 생각한다면, 위대한 연구를 할 용기는 없더라도 연구를 끝까지 부여잡을 힘이 생길 것이다.

위대한 연구자가 되었다면 이타주의적 마음가짐은 더욱 중요해진다. 연구 윤리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 ‘내 연구가 미칠 영향’을 항상 고민하라는 대목이 있다. 위대한 연구는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만일 내 연구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향력이 선한 방향인 것이 좋은 일이 아닐까. 도덕적 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신입 연구자부터 이러한 고민을 하는 자세는 위대한 연구자가 되어 빛을 발할 것이다.

연구자가 된 개인적 동기는 모두 다르지만,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다. 돈, 명예, 직업적 성공 등 각자 연구자가 된 개인적 동기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이러한 동기도 물론 훌륭하지만,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기에는 조금 부족해보인다. 개인적 동기에서 이타주의를 더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내 연구를 통해 사람들을 구하고,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꽤 멋진 일일 것이다. 누군가는 도덕적 우월감이라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을 돕고자 행동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비난하는 사람보다 세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연구와 기술로 세상을 구할 영웅들이다. 조금 민망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에 몰입해보자.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지 않는가? 여전히 위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갈 힘을 얻었다. 우리는 이 힘을 토대로 위대한 연구를 할 용기를 얻고, 마침내 위대한 연구에 도달할 것이다.